

# 내가 쓴 스토리가 게임으로... 아마추어 문학에 '새 숨결'

## ▶ 착한 게임이 온다

### ⑥ 컴투스

공모전 '글로벌 게임문학상' 운영 수상시 상금에 인턴십 참여 기회 최우수 수상작은 게임으로 제작 판타지 '드래곤 퀸 메이커' 탄생

내가 쓴 시나리오가 실제 게임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추어가 쓴 시나리오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작품으로 제작하는 게임사가 있다. '서머너즈 워'로 유명한 컴투스다.

컴투스는 지난 2018년부터 우수한 스토리 창작 인재 발굴을 위해 '컴투스 글로벌 게임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제 1회 열린 컴투스 글로벌 게임문학상에서는 '원천 스토리' 부문에서 총 3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2회부터는 기존 원천 스토리뿐 아니라 '게임 시나리오' 부문을 신설해 작품 범위를 넓혔다.

공모전 수상자들은 상과 상금뿐 아니라 실제 게임 제작 현장 실무를 엿볼 수 있는 특별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수상작품집을 출간했다. 수상작가들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자신들의



'컴투스 글로벌 게임문학상 2019' 수상작품집 이미지.

원고를 직접 편집하고, 제작에도 참여했다.

최근에는 게임 시나리오 부문 최우수 수상작을 실제 스토리 게임으로 제작하기로 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아마추어 작가의 시나리오가 게임으로 제작되는 일은 흔치 않다. 글로벌 게임문학상을 통해 단순 공모전을 넘어 예비 창작자가 실제 창작자로 데뷔하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창작자로 데뷔할 기회를 얻게 된 주인공은 한양대학교를 갓 졸업한 최지혜 씨다. 게임 시나리오 부문에서 '드래곤 퀸 메이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드래곤 퀸 메이커는 자신을 죽인 왕의 딸로 환생한 드래곤이 점차 복수에서 벗

어나 인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로맨스 판타지 스토리다. 최지혜 씨는 게임 제작 프로젝트에서 객원 작가로 참여하고 있다.

컴투스와 자회사 데이세븐 측은 "해당 작품의 독특한 세계관과 매력적인 캐릭터, 분기별 선택에 따른 스토리 확장 등을 높게 평가해 게임 제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드래곤 퀸 메이커'로 컴투스 글로벌 게임문학상 최우수상을 받은 최지혜 씨와의 일문일답.

####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자면.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를 나온 최지혜다. 공모전에 당선됐을 때만 해도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졸업생이다."



'컴투스 글로벌 게임문학상 2019' 수상작품집 내 '드래곤 퀸 메이커' 삽화 이미지. /컴투스

#### -드래곤 퀸 메이커의 세계관이 궁금하다. 작품 창작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받았나.

"어려서부터 다양한 판타지 소설을 읽으며 드래곤을 좋아했는데,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을 보다가 권력가의 딸로 환생하는 소재를 여러 번 접했다. 주로 평범한 주인공이 냉철한 권력가의 아기로 태어나 처세술로 살아남는다는 내용이였다. 소설을 보다 문득 '강력한 힘을 가진 드래곤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디어에 '공주를 납치했던 못된 드래곤이 공주의 딸로 태어나 공주가 된다'

는 동화적인 내용을 넣어 완성했다." -글로벌 게임문학상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평소에도 게임에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부터 최근에는 콘솔 게임까지 즐길 정도로 게임이 취미다. 특히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에는 게임 관련 전공 수업도 개설돼 수업을 듣기도 했다."

-본인 작품이 컴투스 자회사를 통해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게 됐다. 객원 작가로도 참여하게 된 소감은 어떤가.

"어느 공모전이든, 당선작이 실제 게임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들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게 돼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게임 제작을 긍정적으로 봐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작가로 참여하면서 게임 제작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이 많다.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창작자들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할까. 아마추어 작가로 작품을 창작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궁금하다.

"일상의 변화에 따라 창작 활동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게 아마추어 작가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싶다. 공모전을 준비하려고 해도 따로 시간 내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중장년 구직자 60%, 6개월 이상 '장기 백수'

### 전경련 268명 대상 설문 10명 중 4명 "직종 변경의향 있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268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중장년 구직자의 구직기간을 보면 10명 중에 6명 가까이(57.8%)는 6개월 이상(6개월~1년 26.5%, 1~2년 25.7%, 2년 이상 5.6%) 장기실업상태라고 응답했다. 이어 '3개월~6개월' (26.5%), '3개월 미만' (15.7%) 순이었다.

재취업 시 본인이 경험한 주 직종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0.8%, 직종을 변경해서 재취업하겠다는 응답이 39.2%였다.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재취업을 위해 직종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셈이다.

직종변경을 원하는 구직자들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연구직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단순노무직 50.0% ▲사무관리직 44.2% ▲영업판매직 43.7% 순으로 응답했다.

직종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연령제한 등으로 주 직종 취업가능성 희박'이 4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희망직종이 중장년 취업에 용이하다'는 응답이 16.4%, '기존 주 직종 일자리 부족'이 8.9%를 차지했다.

중장년 구직자들의 재취업 희망임금은 평균 월 24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의 퇴직 시 임금 월 315만원의 77%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인 작년 12월 조사된 희망임금 252만원보다 8만원 적은 액수다.

희망임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인 2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1.6%),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9.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3.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시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자 비율은 21.6%에 달했으나, 재취업 시 월 500만원 이상 희망자는 1.5%에 그쳤다. 전경련은 산하 중장년일자리센터를 통해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설계, 재도약·전직스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프라엘 광고 영상

/LG전자

## 김희애·이나영... LG '프라엘' CF 온에어

### 피부탄력 개선 등 핵심기술 담아

LG전자의 프리미엄 홈 뷰티기기 브랜드 프라엘이 5일 새로운 TV CF를 공개했다.

이번 CF는 모델인 배우 김희애와 이나영이 함께 출연한 첫 영상이다. 두 배우의 당당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통해 '더마LED 마스크'의 탁월한 효능과 안전성을 전달하는 한편, 기존 광고모델 이나영의 도회적 이미지와 지난해 새롭게 합류한 김희애의 기품 있는 이미지를 더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했다.

영상은 화이트 셔츠와 레드 컬러의 와이드 팬츠를 매치한 이나영이 강렬하게 등장하면서 시작한다. 당당한 워킹과 함께 카메라를 향해 "LED 마스크 효과는 역시 프라엘이라는 것, 아시죠?"라고 말하며 프라엘의 자신감을 드러낸다.

이나영은 내레이션을 통해 더마LED

마스크는 "LED 하나하나의 파워가 강해 더 깊이 침투하고, 피부 속까지 닿는 빛의 양도 훨씬 많다"며 '코어라이트'의 탁월한 효능을 설명한다. '코어라이트'는 LED 빛을 피부 겉부터 속까지 고르게 도달시켜 근본적인 피부탄력을 개선하는 LG 프라엘만의 핵심 기술이다.

이어서 김희애가 우아한 원피스로 스타일링한 모습으로 등장해 "이제 안전한 효과까지, 프라엘"이라며 "국내 유일 미국 FDA 클래스II를 인가 받은 건 오직 프라엘 뿐"이라며 더마LED 마스크 안정성을 설명한다.

프라엘 더마 LED 마스크는 국내 판매 중인 가정용 LED 마스크 중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클래스 II' 인가를 획득해 가정용 의료기기 수준 안전과 효능을 만족한다. 빛을 99.8% 차단해주는 아이쉴드 디자인과 착용감 지 센서 등으로 안전성을 더 높였다.

/김재용 기자

## 공영쇼핑, 경북지역 수산물 특별 판매전

공영쇼핑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제품과 수산물을 5월 한 달간 온라인몰 및 모바일앱에서 특별 기획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북세일 페스타'에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한다.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약 100여개 업체의 우수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4일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선 고등어, 전복, 명게, 갈치 등 국내산 우수 수산물 약 200여개 품목을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된 우리 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TV 판매방송은 시간이 한정돼 있지만 공영쇼핑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은 구매시간 제약없이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 판매할 수 있는 만

큼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과 수산물 제품들을 집중소개 및 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마련했다"면서 "공영쇼핑은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쇼핑은 이날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소비 촉진을 위한 '7일간의 가치삼시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승호 기자 bada@